

2006-10-12 기술과 사회 모임

토론자료: 지식사회 비판: 2005. 홍성태. 문화과학사.

논의의 핵심:

- 정보사회론, 지식사회론과 관련된 각종의 담론, 특히 주류 정보사회론자--벨, 드러커, 토플러 등--과 우리나라의 관련 상황에 대한 비판이 핵심주제.
-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 동학 dynamics의 탐구.

책은 내용상, 크게 3부분으로 분리

1-74: 주류 정보사회론에 대한 비판

75-148: 정보사회론의 정치경제적 토대로--'정보시대의 법적 형태'(p.134)--기능하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비판

149쪽 이하: 우리나라 상황, 현실사례, 주류담론, 개인적/사회적 행태와 유행 등에 대해 앞서 논의한 이론적 틀을 가지고 제기한 비판을 담고 있는 부분.

홍성태의 주장/논리:

주류 정보사회론의 주장 == 작금의 경제/사회/정치/문화 등의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양상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문명의 개막이라는 의미부여 ---> 이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상체계로서의 정보사회론의 유포 --->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경제적 토대로서의 지적재산권 체제의 강화 ---> 이는 곧 정보 자본주의의 강화, 즉 자본주의의 새로운 체제적 강화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이는 새로운 문명사회의 대두를 의미하는 것.

주류 정보사회론 등장의 배경

p. 51 이하. 1960년대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응전.

1. 냉전시대에서 자본주의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질서 구축의 이데올로기적 동원.
2. 성장의 한계/환경문제 등의 대두에 따른 산업주의 문제의 보정.

===> “서구의 1960년대가 제기한 새로운 도전은 결국 근대 사회에서 벗어나려는 기획, 즉 탈근대의 기획을 구성하는 것”(51). 그러나 정보사회론은 지배적 입장에서의 탈근대의 기획의 산물. casino capitalism. 새로운 부의 생산과 성장의 이론. 정보기술을 매개로 한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귀결.

1960년대에 요망되었던 탈근대 프로젝트의 진정한 모습은? p. 72 생태위기의 해결 / 자본주의 부정부성, 독점성, 불평등 문제의 해소 방안을 제시했어야....

그러나 실제로는 p. 46-47: 정보사회론, 문명론적 혁명론의 본질 ==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 이를 탈 자본주의와 탈산업주의의 실현으로 제시하는 ‘혁명의 수사학’... “자본주의와 산업주의의 극단적 확장일 뿐.” p. 72 “새로운 부의 생산과 성장의 이론”으로 귀착되었다는 것.

같은 맥락에서 지식사회론 -- 지식의 경제적 구실강조 -- 정보의 상품화 현상 == 지식자본주의 사회의 형성 (p.77)

지식 자본주의 사회의 제도적 토대: 국내·외적인 지적 재산권 제도(의 강화). p. 88 이하, p.99이하

-- 이것이 초래하는 상황/문제의 본질: p.92 "환금성이 강한 지식과 돈을 벌게 해주는 수단에 관한 지식이 전체 지식생태계를 지배하게 된다. 여기서 근대 지식의 강한 ‘진리 주장’은 [지식생태계의 금전적 지배에] 대한 이론적 비판보다는 돈의 위력에 의해 터무니없을 정도로 쉽게 무너지고 만다.“

--- 이러한 주류담론에서 간과되고 있는 문제는?

===> 공공재의 약화, 독점과 경쟁의 약화.

--- 따라서 필요한 것은 ‘정보사회’, ‘지식사회’용어, 개념들의 이데올로기적 기능. 즉, 현실자본주의의 모순을 일정하게 은폐하는 부분을 드러냄으로서, 이들 용어, 개념들에 대한 비판적 성찰.

--- 또,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open source / copyleft 운동의 각별한 실천적/정치경제학적 의미 강조

생각해 볼 것들:

1. 현대 사회의 발전양식의 변화에 대한 M. Castells의 지적:

modes of development: industrialism --> informationalism으로의 전화.

modes of development distinguish the technological arrangements through which labor works on matter to generate the product, ultimately determining the level and quality of surplus.

그렇다면, 정보사회-지식사회-정보사회론-지식사회론이라는 용어/개념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지금 새로운 변화/변혁의 project가 요구된다, 내지는 기존의 사회변혁의 이론적 틀을 바꾸어야 한다는 점. 즉, 이같은 새로운 이름짓기의 기본적 취지는 '지금의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 --> 따라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 / 새로운 정치학, 사회학, 기술, 과학, 심리학, 문화, 경제학..... / 새로운 사회변화의 논리. 비판의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 따라서 주류 정보사회론의 의의는 과거의 논리, 과거의 사고는 더 이상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일종의 각성효과?

2. casino capitalism, winner-takes-all capitalism, 독점 자본주의의 전일적 관철?

long tail: amazon 매출 1/3이 서점에 없는 책에서. 구글의 adsense 등, web 2.0 이것이 정보기술이 반드시 '공유의 대상'(copyleft/open source)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주지하다시피 정보기술은 배타적 권리의 영역이면서(예: MS Windows) 또 한편으로는 공유의 영역(예: Linux)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배타적 권리의 형식이 지배적인 지식생산과 유통영역에 다중의 참여형식을 통한 새로운 지식생산과 유통의 틀이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 가지는 정치경제적 함의이다(*Economist*, 2006).

등의 현상이 보여주는 새로운 경제적 운용양태(operational mode).

3. 국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의 부족. an entity subservient to capital? 독점 자본주의 시대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제거하는 논리로서의 open source / copyleft 등의 가능성. linux의 공동개발/연구, 지원. MS 독점으로부터의 해방.

4. 지식의 의미 재확인--인문학의 회복!: D. McCarthy의 지적. p. 9. kaleidoscopic changes / the elusiveness of social realities... / under the turbulent surface.... 세계의 변화무쌍함. 변화무쌍한 세계의 이해에 필요한 자원으로서의 지식